

중부권

“장흥 표고 납 검출 억울해요”

장흥 표고버섯 재배농가들이 최근 언론보도로 지역이미지 추락과 함께 수확액 원대 손해를 입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장흥군과 표고버섯 재배농가들은 “최근 모 방송에서 식품약품안전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표고버섯 중금속 검출보도에 장흥 표고버섯이 추석을 앞두고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12일 호소했다.

지난 8일 중앙언론이 식약청의 내부자료라며 전국의 표고버섯 76건 모든 제품에서 유럽연합(EU) 기준치보다 높은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했다.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 장흥표고버섯의 출하길이 막히고 수천 개 제품의 반쯤 시체가 이어지는 등 생산자와 유통회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현실이다.

군과 표고연합회(회장 김창원)측

郡 “EU 기준치 밑도는데 식약청 자료 보도로 타격”

추석 앞 출하길 막히고 수천개 반쯤 수확액 피해



은 장흥산 표고에서는 납 0.007ppm, 카드뮴 0.02ppm이 검출됐으며 이는 자연 상태에서도 검출되는 수준이며

EU 기준치(납 0.3ppm, 카드뮴 0.2ppm)에 크게 미달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표고버섯 재배농가들은 “무책임한 보도 때문에 정직한 땅으로 농산물을 일궈온 농민들의 가슴을 멎게 하고, 가뜰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더욱 파멸하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장흥군 표고버섯 김창원 회장과 총납 부여 표고버섯 등 전국 표고연합회 대표 10명은 지난 12일 표고버섯 중금속 검출 경위를 들어보기 위해 해당 방송사 본사를 방문, 재배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실보도를 요구하고 만약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앞으로 농가들이 나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장흥지역은 600여 농가에서 연간 표고버섯(건표고 기준) 570t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27%(전남 74%)를 차지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개원 100일도 안돼 해외연수라니...” 시민 반발에

나주시의회 “일단 보류”

나주시의회가 다음달 초 다녀오기로 한 호주연수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일단 보류했다.

12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채 100일도 안된 시점에서 해외 연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시민들의 비난이 높아 결국 지난 10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연수계획을 일단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의회는 당초 행정자치위원

회 소속 의원·의장 등 의원 8명과 수행원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호주방문단을 구성하고 다음달 6일부터 11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호주 교육관련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둘러볼 계획이었다.

경비는 의원연수비 등 4130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나주시의회의 호주 연수 취소방침에 대해 시민들은 원칙과 소신 없는 의회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 한모(55·금남동)씨는 “시의

회의 해외연수 계획이 옳다 싶으면 가야하고, 옳지 않았다면 당초에 추진하지 말아야 했다”며 “개원초부터 원칙없이 급지 않은 시전에도 불구하고 강행, 부정한 여론이 일자 의회 계획이 뒤바뀐 것은 무소신 의회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덕택 의장은 “시민들도 미래지향적인 해외연수는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한다”며 “모두 나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환기자 chung@

“담양쌀 서울학생 밥상”

郡-급식업체 240t 계약

담양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한 ‘대슬맑은 쌀’이 서울 지역 학생들의 밥상에 오르게 됐다.

담양군은 서울시와 전남도 주관으로 지난 8일부터 열리는 ‘서울 한미당 직거래 장터’에서 운영중인 ‘추석맞이 농특산물 특별전’ 판매장을 통해 학교급식 납품업체 2곳과 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군은 판매 현장에서 수도권 최대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주)미두락(대표 정경원), (주)아름다운쌀가게(대표 고영진)와 친환경 무농약 쌀 240t(4억 800만원)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9일부터 납품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담곡중학교와 금천구 문성초등학교 학교급식 식재료로 납품돼 학생들의 밥상에 오르게 됐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8일 광주 문정초등학교와 운암초등학교, 신광중학교 등 3개 학교에 각각 매일 20kg 50포씩 총 18t의 쌀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추석 앞담양향과 꽃단장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담양군 창평면에 위치한 한과 제조업체에서 한과를 포장하는 직원들의 손길이 분사한다.

담양 한과는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해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담양군 제공>

장흥 노력향 18~26일 추석 직거래 장터 개설

장흥군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제2주행 폐수 여객선 운항자인 회진면 노력향에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군은 이를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장흥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산지에서 직접 수확한 신선하고 값싼 친환경 농림수산물들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주요 판매품목은 유·무기산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장흥무산 청정 김을 비롯해 청정해역에서 자란 미역·다시마·꼬시래기, 키조개, 탐라이스·보리쌀·잡쌀·현미쌀 등 곡류, 표고버섯 등이다.

그동안 장흥군에서는 ▲수산물(감·미역) 친환경 인증 791ha ▲농산물 친환경 인증 5141ha ▲표고버섯과 키조개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으로 친환경 농수산물들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이번 장터에서 ▲정남진 토요일 시장 ▲천관산 관광시장 ▲로하스타운 시범지구 입주신선 안내 ▲장흥해당 일일산단단지 분양 ▲2010 대한민국 통합과학박람회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비만 오면 넘치는 ‘담양 하수처리장’

260억 들어 작년 완공...오·폐수 영산강 유입

집중호우시에 담양군 하수종말처리장 일일 처리량을 초과한 오·폐수가 영산강으로 무단 방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담양군은 원활한 오·폐수의 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260억여원을 투입해 BTL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난 2005년에 착공해 지난해 11월 준공했다.

하지만 BTL사업 목적과는 달리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 처리된 상태에서 방류돼야 할 오·폐수와 생분뇨가

집중호우시에 그대로 영산강으로 흘러 들어가 영산강의 시원지인 담양군이 환경오염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일대는 환경부가 담양하천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이기도 더욱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강우량이 많은 장마철이나 폭우가 쏟아질 경우 일일 처리량(7000t)을 초과한 많은 양의 오·폐수가 유입돼 부득이 바이패스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며 “BTL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시공이 덜된 곳이 있어서 현재 분류식(오수관)이 아닌 합류식(오수+우수관) 관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양이 처리량의 한계를 넘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행 법상 하수도법 제 19조 2항에 의거 더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면 의무사항이 할 수 없다”며 “담양군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고 비가 오기 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영산강, 내년부터 ‘특별관리’

영암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영암군은 내년부터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영암군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개발 사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총량관리제 계획 수립에 나서 최근 완료했다.

총량관리제가 시작되면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시설 등에 대해서는 단위 유역별 목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그동안은 개발사업시 오·폐수 배출 허용기준만을 준수하면 됐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는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 목표수질을 정해 오염물질 배출한도를 설정, 관리하는 것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예측량을 조사해 오염물질을 줄이려는 하수종말 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등 깨끗하고 청결한 영암을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박재진기자 pj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eongnam Maegak Gongdo' with details on location, floor area,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wangcheon e-Pleasant World' with details on lot size, unit type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yundai Gongin Jeonggaesa' with details on lot size, building type,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eumdam Gongin Jeonggaesa' with details on lot size, building type,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Budeungsan' with details on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Inseong Yeolshin' with details on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